

외도 경험에 대한 기혼남녀의 대처방식이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 미 혜(동의대학교 석사) · 윤 경 자**(동의대학교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배우자의 외도는 일부일처제가 시행된 이래로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많은 문학작품이나 TV드라마, 영화들은 외도를 주제로 한 작품이 많으며 외도의 유형에 있어서도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졌으며 외도에 대해서도 과거의 부정적이며 비윤리적이라는 가치관에서 벗어나 심지어 결혼생활의 활력소나 부부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배연정, 2003; 오영이, 2009; 이충민, 2011). 그러나 외도는 “기본적으로 결혼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측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부부의 정서적 또는 성적 독점성에 대한 계약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부부 본연의 관계와 그에 따른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이탈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정의된다(양유성, 2008). 이러한 외도는 흔히 혼외정사, 혼외관계, 불륜(不倫), 바람과 같은 단어들과 혼용되며 그 조어(造語)가 의미하는 것처럼 반윤리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처럼 반(反)윤리와 이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곧 부부관계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통계청(2010)에 의하면 2009년 총 이혼 건수는 12만4천 건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혼 건수는 총 1만4백 건으로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인식했을 경우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외도를 경험한 모든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게 된 순간, 위기극복 과정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결혼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그것이 가능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Donald, 2010). 또한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배우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에 빠질 수 있으며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 이혼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결코 그런 일은 바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Lusterman, 2004). 이는 외도를 경험한 부부가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 일부에 기초한 것임

** 교신저자 : gjyoon@deu.ac.kr

반드시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는 외도라는 시련을 경험하더라도 부부에 따라서 대처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부부에 따라 외도라는 상황 속에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고,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는 부부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도 상황 이후에 ‘긍정적인 방법으로 외도라는 시련을 해결하였는가? 긍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였는가?’ 라는 물음의 해답에 따라 외도 이후 달라지는 부부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은 결국 부부의 구성원이 가지는 가족레질리언스에 대한 문제로, 그 정도에 따라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레질리언스는 ‘가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적이 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 가족단위에서 부딪히는 위기, 변화, 다른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의미한다(Danielson, Bissell & Fry, 1993). 그러므로 이는 부부중심의 가족관계에서 결혼안정성과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며 이는 외도와 같은 좌절 상황에서 더욱 잘 드러날 것이다.

그간 외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외도 이후 배우자의 좌절이나 상담사례들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이는 부부관계에서 외도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외도에 따른 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 그리고 나아가 가족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외도 상황에서의 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과 가족레질리언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외도라는 상황을 겪는 것은 가장 밀착된 관계에 있는 부부 구성원으로부터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외도라는 역경 요소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외도에 대한 긍정적 대처방식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족레질리언스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도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과 가족레질리언스간 관계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해보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외도

1) 외도의 개념

외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지 아니한 길이나, 노릇’을 뜻하거나 ‘오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국립국어원, 2011). 이러한 외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비밀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바람을 피우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분명한 단어로는 ‘혼외 성관계(extramarital intercourse)’, ‘불륜(immorality)’, ‘간통 또는 간음(adultery)’ 등의 단어들이 유사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혼외 성관계’는 결혼한 남녀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맺는 모든 형태의 성적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영수, 2008). 또한 미국의 에밀리 브라운은 만약 결혼 생활에 쏟아야 할 삶의 에너지를 다른 이성에게 쏟아붓고 있다면 외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rown, 1999).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고, 언어적이든지 비언어적이든지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외도로 보아야 한다고 미국의 부부 상담 전문가인 윌리드 할리는 주장한다(Willard & Harley, 1998). 이를 종합해 보면 외도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원래의 바른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혼외성관계를 가지거나, 불륜 관계, 간음 등의 행위를 통칭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외도의 유형

외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데 어떤 요인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Thompson(1984)은 외도를 성적 관계이나 정서적 관계는 아닌 유형, 성적 관계이면서 정서적 관계인 유형, 정서적 관계이나 성적 관계는 아닌 유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Subotnik & Harris(1999)는 정서적 몰입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연쇄적 외도, 일시적 시도형 외도, 낭만적 외도, 장기적 외도로 분류하였으며, Hans Jellouschek(2003)는 부부관계에서 건강하고 적절한 균형이 깨질 때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 외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Lusterman(2004)은 하룻밤 외도, 습관성 외도, 혼외정사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동성친구와의 성관계 역시 외도로 보고 있다. 그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은 일부 '소수자'에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성장한다고 지적한다. 양유성(2008)은 힘의 역학관계를 기준으로 외도의 유형을 구분한다. 외도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따라 많은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만큼이나 외도 이후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방식 또한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도를 겪은 사람들 중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 파경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긍정적인 극복으로 인하여 외도를 대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2) 외도 후 변화

외도는 외도 당사자나 배반당한 배우자 모두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윤선자, 2009). 부부는 그 어떤 집단보다 구성원 간의 친밀도가 강하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남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좌절감도 높고, 갈등 또한 빈번하다. 부부간의 갈등이 야기되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특히 부부사이에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되면 여성의 경우 육감적으로 감지를 하기도 하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내 아내는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의심은 적다.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가는 느낌이나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기고 뭔가 남편에게 여자로서의 매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반대로 남성은 외도를 한 후 마음속의 불안한 심리를 숨기려는 의도로 인해 아내에게 말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외도하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배우자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며, 의사소통 방식에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성행위에서도 부부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외도하는 남성은 성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성적 열정이 갑자기 약해지기도 하고 또는 자주 새롭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성행위를 원하기도 하면서 외도하는 쪽이 성적인 환상을 갖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양유성, 2008). 여성인 경우는 꿈을 꾸는 듯하기도 하고 얼굴에 새로운 활기가 생기고 뭔가 모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Lusterman, 2004).

이처럼 외도의 상황을 겪게 되는 부부의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정도와 함께, 그 후에 다가오는 대처방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방식을 나타낸다. Wright(1995)는 외도 이후의 반응에 대해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된 사람이 받는 충격과 정서적 혼돈 등 외도로 인해 받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단계를 4단계의 모델로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외도 사실이 가져다주는 충격단계, 상대방의 외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지는 후퇴와 혼돈단계,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소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서게 되는 조정단계,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로 흐트러진 부부관계를 재구성하거나 화해하는 단계로 나누었다. 이 모델은 외도후 충격과 혼돈, 무기력의 반응에서 조정과 재구성을 통하여 화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Virkler(2006)의 경우에는 Kubler-Ross(2001)의 말기 암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소개된 5단계 모델을 외도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설명해 놓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이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인의 단계이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둘 발견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인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면, 두 번째의 단계인 분노 단계로 이전된다. 외도를 한 남편에게 분노의 감정을 퍼붓고 나면, 남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 단계인 협상을 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협상의 과정에서 생각한 바와 달리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내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해지는 네 번째 단계인 우울 단계로 가게 되어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후 남편의 외도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색하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김현진, 문희경, 2006 재인용).

Dolesh & Lehman(1985)도 외도의 반응에 있어서 아내의 반응에 대해 5단계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불신, 분노, 상실감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아내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시키게 하여 이 혼란한 사태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통제할 힘을 비축하면서, 마치 남편의 외도가 없었던 것처럼 부인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 동기화되어지며, 남편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여 남편을 외도하게 한 자신의 행동을 찾아서 자책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면, 자신에게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네 번째 단계에서는 분노를 표현하는 단계로 전이되는데, 앞선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아내의 노력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 심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 학대받은 것 등에 대한 분노로 보복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아내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게 되고, 남편의 외도 현실을 수용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남편의 외도에 대한 반응 중에 아내가 겪게 되었던 분노, 상실감, 우울, 두려움, 불안 등을 표출하게 되면서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침착한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고려하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를 모색하게 된다. 남편과 밀착되어 있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끊을 것인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윤선자(2009)의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 발견 초기에는 현실회피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남편의 외도 원인을 합리화하려고 하였고, 다음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남편의 외도 원인에 대해 객관적인 자기인식을 하는 단계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객관적이고 현상적인 이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하는 단계라고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의 반응을 보면, 상황을 무시해 버리는 것, 보복하거나 복수를 꾀하는 것,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것,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 중의 어떤 대처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결혼관계에 위기상황이 오게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개인의 몫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방식에 따라 가족구성원들의 안전과 당사자인 부부관계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외도에 대한 대처방식

배우자의 외도로 각기 다른 반응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대처방식에 따라서 부부사이에 긍정적 변화를 하여 부부관계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부정적 대처로 인해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부부사이의 갈등은 그 어떤 갈등보다도 위기 상황이며 결혼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다. 이와 같은 외도의 위기를 또 다른 관점으로 조망한 Natarius와 Markman(1993)은 결혼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는 부부간의 상이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그 상이성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관계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대안적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하였지만 내적·외적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며, 대처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결혼안정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긍정적인 대처방식은 결혼안정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부정적인 대처방식은 결혼안정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위기에 도전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긍정적인 대처유형을 ‘극복형’, 결혼관계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외도라는 상황에 계속적인 비난과 불신으로 결혼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을 ‘비난불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이런 위기에서 도전하지 않고 회피해 버리려는 성향을 ‘회피형’으로 명명하였고,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는 형태처럼 방치해 버리는 성향을 ‘방치형’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또한 이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취하는 행동으로서 계산적인 형태를 보이는 성향을 ‘계산형’으로 명명하였다.

2. 가족레질리언스

1) 가족레질리언스의 개념과 구성요인

가족레질리언스에서 레질리언스(Resilience)란 Luthar는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서 효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Walsh(1998)는 가족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를 고위험의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개인, 가족,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과 위험요인(risk factor)을 찾는 것을 뜻하며, 가족 내의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 단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Walsh의 가족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을 활용하였다. Walsh는 가족레질리언스를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 실체인 가족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레질리언스의 구성요인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으로 분류하였다.

3. 결혼안정성

서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건강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표되었고 1970년대부터 부부관계의 안정성과 연관 있는 결혼적응, 결혼생활의 질, 결혼만족도 등의 개념들에 관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안정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안정성 용어는 결혼만족도 및 결혼의 질 등에 관한 연구에서 여전히 개념적인 혼란이 남아 있다(임수민, 2011).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결혼안정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Burr(1973)는 이 개념을 '지속적인 생활(Continued exist-ence)' 대 '결혼에서의 종국(termination of marriage)'으로 정의했고, Lenthall은 '개인의 가장 유용한 결혼대안(marital alternative)과 '결혼의 결과 사이의 비교'의 기능으로 개념화했다. 한편 결혼불안정성은 결혼안정성과 같은 차원의 다른 극단에 있는 개념으로 결혼와해, 이혼, 낮은 결혼의 질, 유기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서로 상관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미숙, 1989). 본 연구에서는 외도라는 강한 위기에도 결혼생활이 파경이나 해체되지 않으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Lewis와 Spanier(1979)의 연구 결과 및 윤경자와 Schumm(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안정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윤경자와 Schumm의 연구(1997)에서는 높은 외적 압력은 대안이 거의 없이 지내는 불만족스러운 여성들의 결혼안정성을 오히려 떨어뜨렸으며 가장 낮은 안정성을 나타내게 하였고, 높은 외적 압력은 행복한 부인들에게만 결혼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도라는 위기상황도 부부 개인의 특성과 가족레질리언스에 의해 결혼안정성이 더 강화되기도 할 것이고 더 약화되기도 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족레질리언스를 나타내는 부부들은 결혼안정성이 높을 것이고 가족레질리언스 수준이 낮은 부부들의 결혼안정성은 낮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도 부부들이 외도의 위기를 겪은 후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대처유형은 외도를 경험한 부부들의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매개변수로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부들이 외도의 위기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낮아져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대처는 어떻게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의 틀

1)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외도

혼외성관계를 포함하여 정서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모두 외도의 개념에 포함하되 동성애는 제외한 남녀 관계를 뜻한다.

(2) 가족레질리언스

가족에게 위기나 고통, 그리고 역경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을 헤쳐 나가거나 극복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나 역량을 말한다.

(3) 결혼안정성

결혼생활을 이어가려는 의지 및 정도로, 결혼만족도가 낮을 경우에도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높을 때, 결혼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경험이 있는 기혼남녀의 대처방식이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문제로 하여 그들의 대처방식이 긍정적일수록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외도 대처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외도를 경험한 기혼 남녀의 가족레질리언스에 따라 결혼안정성이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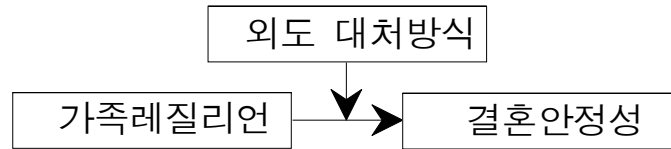
<연구문제 3>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는 외도에 대한 기혼 남녀의 대처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1] 외도에 대한 기혼 남녀의 대처방식이 긍정적일 경우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킬 것이다.

[3-2] 외도에 대한 기혼 남녀의 대처방식이 부정적일 경우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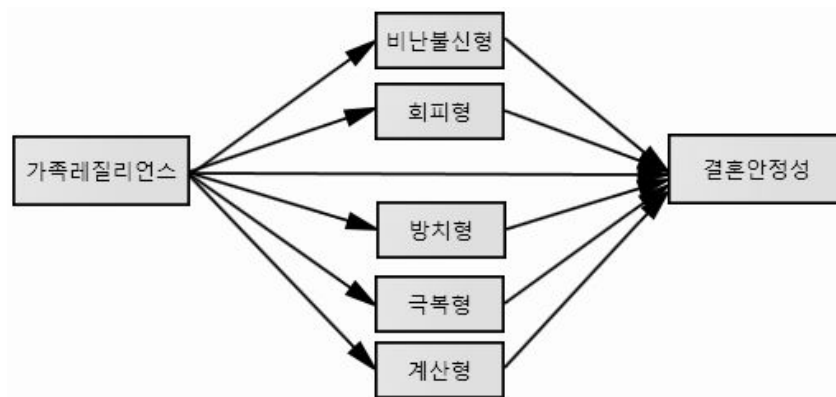
3) 연구모형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도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그림 2> 변수들 간 경로를 나타낸 연구모형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외도 이후의 대처방식과 결혼안정성, 가족레질리언스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 남녀와 경남 통영 및, 경기도에 있는 기혼남녀로서 편의표집으로 추출하였다.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부산시내 서비스업 3곳의 기혼남녀 근무자, 지인 서클단체 8곳(운동모임, 학교모임, 계모임4, 학부형모임2)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통영에서는 통영시내에 근무하는 사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관공서 1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상담을 통한 내담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 상담 내담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다. 부산시내에 배포한 설문지는 주 연구자가 직접 회수 하였으며, 통영, 경기도에 배포한 설문지는 조사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회수하여 우편으로 회송하였다. 총 373부를 배포하였으나, 301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은 80.7%로 나타났다. 이 중 배우자나 본인의 외도 경험이 있는 기혼자는 115명으로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38.2%로 나타났으며, 115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총 115명 중 남자는 24.6%(28), 여자는 75.4%(86)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40대가 58.4%(66)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6.5%(30) 마지막으로 30대는 15.0%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53.9%(62), 대졸은 38.3%(44)로 나타났다. 결혼관계는 기혼과 이혼 및 별거의 문항 중 기혼이 85.8%(97)로 높았으며, 결혼기간에서는 20년 이상이 44.2%(50), 15년~20년 사이가 27.4%(31)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결혼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설문지 배포시 연령층이 40, 50대를 중점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서는 서비스 직종이 28.0%(30)로 편의 표집된 부분이라 서비스 직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56.5%(65)를 차지하였으며, 소득수준은 500만원 이상이 28.7%(85)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가 56.5%(65)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불교가 전체의 40.0%(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8	24.6
	여자	86	75.4
연령	30대 이하	17	15.0
	40대	66	58.4
	50대 이상	30	26.5
교육수준	초졸 이하	2	1.7
	중졸	4	3.5
	고졸	62	53.9
	대졸	44	38.3
	대학원졸 이상	3	2.6
결혼관계	기혼	97	85.8
	이혼 및 별거	16	14.2
결혼기간	5년이하	4	3.5
	5~10년	12	10.6
	10~15년	16	14.2
	15~20년	31	27.4
	20년이상	50	44.2
직업	생산,운수,장비,운전사,단순노무자	19	17.8
	농림수산종사자	2	1.9
	서비스직종사자	30	28.0
	판매종사자	13	12.1
	사무관련종사자	13	12.1
	행정관리직종사자	6	5.6
	전문기술및전문직종사자	17	15.9
	전업주부	7	6.5

	구분	빈도(명)	비율(%)
자녀수	없음	8	7.0
	1명	25	21.7
	2명	65	56.5
	3명	17	14.8
소득수준	100-200만원	13	11.3
	200-300만원	16	13.9
	300-400만원	26	22.6
	400-500만원	18	15.7
	500만원 이상	85	28.7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	56.5
	맞벌이 외 유형	50	43.5
종교	불교	46	40.0
	기독교	21	18.3
	천주교	10	8.7
	유교	1	0.9
	기타	36	31.3
	없음	1	0.9

2. <연구문제 1>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 ANOVA test를 통한 성별, 연령, 결혼관계, 직업, 자녀수, 소득, 맞벌이 여부 등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성별에 따른 대처방식

성별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비난불신형, 회피형, 방치형, 극복형, 계산형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성별에 따른 대처방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비난불신형	남	26	3.21	0.78	0.901	0.369
	여	81	3.07	0.68		
회피형	남	26	3.58	0.75	1.759	0.081
	여	83	3.25	0.84		
방치형	남	26	3.66	0.70	1.555	0.123
	여	82	3.43	0.65		
극복형	남	26	2.64	0.66	-1.399	0.165
	여	82	2.89	0.83		
계산형	남	27	3.33	0.71	1.329	0.189
	여	83	3.10	0.98		

2) 연령에 따른 대처방식

연령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극복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극복형의 경우 30대 이하의 평균이 3.41(0.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4$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0대와 50대 이상은 비슷하나, 30대 이하와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비난불신형, 회피형, 방치형, 계산형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에 따른 대처방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비난불신형	30대 이하	17	2.80	0.53	2.138	0.123
	40대	64	3.17	0.67		
	50대 이상	25	3.16	0.79		
회피형	30대 이하	17	3.49	0.90	0.468	0.628
	40대	65	3.34	0.75		
	50대 이상	26	3.24	0.92		
방치형	30대 이하	17	3.54	0.59	0.155	0.856
	40대	64	3.46	0.65		
	50대 이상	26	3.52	0.75		
극복형	30대 이하	17	3.41 ^a	0.78	5.888	0.004*
	40대	64	2.76 ^b	0.75		
	50대 이상	26	2.67 ^b	0.76		
계산형	30대 이하	17	2.74	0.92	2.426	0.093
	40대	64	3.20	0.94		
	50대 이상	28	3.34	0.85		

* $p < 0.005$

3) 결혼관계에 따른 대처방식

결혼관계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회피형, 방치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형의 경우 기혼의 평균이 3.47(0.74)로 이혼 및 별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방치형의 경우 기혼의 평균이 3.56(0.65)으로 이혼 및 별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5$ 에서 유의하였다. 하지만 비난불신형, 극복형, 계산형은 결혼관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대처방식

조사대상자 배우자의 직업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방치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방치형의 경우 전업주부의 평균이 4.63으로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방치 유형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p = 0.029$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전업주부의 평균만 나머지 직업의 평균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N(2)명에 한해 분석되어진 결과라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더 N의 값이 추가 되었다면 어

면 결과를 가지고 올지 그것은 차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비난불신형, 회피형, 극복형, 계산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표 4> 결혼관계에 따른 대처방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비난불신형	기혼	90	3.16	0.69	1.833	0.070
	이혼 및 별거	16	2.81	0.68		
회피형	기혼	92	3.47	0.74	4.653	0.000**
	이혼 및 별거	16	2.52	0.85		
방치형	기혼	92	3.56	0.65	2.931	0.004*
	이혼 및 별거	15	3.03	0.61		
극복형	기혼	91	2.82	0.80	0.134	0.894
	이혼 및 별거	16	2.79	0.73		
계산형	기혼	94	3.18	0.92	1.224	0.224
	이혼 및 별거	15	2.87	0.92		

* $p < .005$, ** $p < .0005$

5) 자녀의 수에 따른 대처방식

자녀의 수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극복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극복형의 경우 자녀가 없을 때 평균이 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3$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비난불신형, 회피형, 방치형, 계산형은 자녀의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6) 소득에 따른 대처방식

소득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회피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회피형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평균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3$ 에서 유의하였다. 300~400만원의 평균은 3.51, 500만원 이상의 평균이 3.55로서 100~200만원의 평균 2.75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비난불신형, 방치형, 극복형, 계산형은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자녀 수에 따른 대처방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비난불신형	없음	8	2.82	0.50	1.077	0.362
	1명	23	2.98	0.70		
	2명	62	3.20	0.71		
	3명	15	3.06	0.77		
회피형	없음	8	3.46	0.89	0.142	0.934
	1명	23	3.28	0.78		
	2명	64	3.35	0.82		
	3명	15	3.27	0.94		
방치형	없음	8	3.66	0.73	1.030	0.382
	1명	24	3.28	0.75		
	2명	62	3.53	0.59		
	3명	15	3.52	0.76		
극복형	없음	8	3.63 ^a	0.90	3.761	0.013*
	1명	23	2.71 ^b	0.69		
	2명	63	2.73 ^b	0.72		
	3명	15	3.02 ^b	0.96		
계산형	없음	8	3.13	0.74	0.753	0.523
	1명	24	3.35	0.90		
	2명	63	3.05	0.99		
	3명	16	3.28	0.75		

*p<.05

<표 6> 소득에 따른 대처방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비난불신형	100~200	11	2.65	0.68	1.879	0.120
	200~300	16	2.99	0.63		
	300~400	23	3.14	0.65		
	400~500	18	3.07	0.66		
	500 이상	40	3.27	0.75		
회피형	100~200	12	2.75 ^a	0.92	3.349	0.013*
	200~300	16	3.02 ^{ab}	0.79		
	300~400	23	3.51 ^b	0.74		
	400~500	18	3.28 ^{ab}	0.68		
	500 이상	41	3.55 ^b	0.82		
방치형	100~200	12	3.31	0.82	0.438	0.781
	200~300	15	3.37	0.70		
	300~400	24	3.53	0.59		
	400~500	18	3.47	0.74		
	500 이상	40	3.55	0.63		
극복형	100~200	12	2.86	0.74	0.119	0.975
	200~300	16	2.83	0.83		
	300~400	23	2.90	0.83		
	400~500	18	2.87	0.70		
	500 이상	40	2.77	0.84		
계산형	100~200	12	3.13	0.80	0.432	0.785
	200~300	15	2.87	1.16		
	300~400	25	3.20	0.71		
	400~500	18	3.19	1.03		
	500 이상	41	3.22	0.96		

*p<.05

7) 맞벌이 여부에 따른 대처방식

맞벌이 여부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회피형, 계산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형의 경우 맞벌이 외 유형의 평균이 3.55로 맞벌이 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p = 0.015$ 로 나타났다. 계산형의 경우 맞벌이 외 유형의 평균이 3.47로 맞벌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난불신형, 방치형, 극복형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맞벌이 여부에 따른 대처방식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비난 불신형	맞벌이	63	3.08	0.62	-0.362	0.718
	맞벌이 외 유형	45	3.13	0.81		
회피형	맞벌이	63	3.17	0.76	-2.473	0.015*
	맞벌이 외 유형	47	3.55	0.86		
방치형	맞벌이	64	3.41	0.57	-1.207	0.231
	맞벌이 외 유형	45	3.58	0.77		
극복형	맞벌이	63	2.92	0.80	1.377	0.172
	맞벌이 외 유형	46	2.71	0.78		
계산형	맞벌이	63	2.91	0.91	-3.278	0.001**
	맞벌이 외 유형	48	3.47	0.85		

* $p < 0.05$ ** $p < 0.005$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 교육수준, 결혼기간, 종교에 따른 대처방식에 따라 비난불신형, 회피형, 방치형, 극복형, 계산형 모두 이러한 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3. <연구문제 2>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의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158로 15.8%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p) 값은 2.966(0.004)으로 $p < 0.00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표준화계수 = -0.352며, $p = 0.013$ 으로 $p < 0.05$ 에서 유의 하였으며, 긍정적 시각은 표준화계수 = -0.317이며, $p = 0.011$ 로 $p < 0.05$ 에서 유의하였다(<표 8> 참조).

이것은 외도라는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즉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긍정적인 시각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이런 유형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조직유형과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족레질리언스에 따른 결혼안정성 회귀분석

		B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차	VIF
(상수)		1.418		4.881	0.000		
신념 체계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0.196	-0.352	-2.527	0.013	0.461	2.171
	긍정적 시각	-0.143	-0.317	-2.589	0.011	0.599	1.670
	초월과 영성	0.032	0.068	0.546	0.586	0.572	1.749
조직 유형	융통성	0.116	0.239	1.632	0.106	0.419	2.387
	연결성	0.048	0.116	0.778	0.438	0.402	2.487
	가족자원	-0.043	-0.090	-0.837	0.405	0.775	1.290
의사 소통 과정	상호협력적문제해결	0.023	0.050	0.339	0.735	0.419	2.385
	명료성	-0.036	-0.073	-0.515	0.608	0.451	2.216
	개방적인 정서표현	-0.099	-0.245	-1.835	0.070	0.502	1.990

F(p) : 2.966(0.004), dw : 1.696, R² : 0.158

4. <연구문제 3>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는 외도에 대한 기혼남녀의 대처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 3-1과 3-2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도에 대한 기혼남녀의 대처방식이 긍정적일 경우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거나(연구문제 3-1), 그 대처방식이 부정적일 경우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될 것(연구문제 3-2)으로 가설을 세웠으므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대처방식의 평균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1) 비난불신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비난불신형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05)으로 나타났다. 즉 비난을 많이 하는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이 0.46으로 비난을 적게 하는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 0.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안정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난을 많이 하는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이 높다는 것은 결혼안정성이 낮으며 결혼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9> 참조).

<표 9> 비난불신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p
비난불신이 많은 집단	55	0.46	0.23	4.003	0.000*
비난불신이 적은 집단	49	0.27	0.26		

* p<.0005

2) 회피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회피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05$)로 나타났다. 즉 회피가 많은 집단의 결혼불안정성의 평균이 0.51로서 회피가 적은 집단의 결혼안정성 평균 0.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가 많은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이 높다는 것은 결혼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피형을 많이 쓰는 집단이 결혼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0> 참조).

<표 10> 회피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p
회피가 많은 집단	41	0.51	0.21	6.141	0.000*
회피가 적은 집단	49	0.23	0.22		

* $p < 0.0005$

3) 방치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방치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 < 0.0005$ 의 유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방치형 점수가 높은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이 0.50으로 방치형 점수가 낮은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 0.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치형을 많이 쓰는 집단일 수록 결혼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1> 참조).

<표 11> 방치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p
방치가 많은 집단	42	0.50	0.19	4.955	0.000*
방치가 적은 집단	63	0.28	0.26		

* $p < 0.0005$

4) 극복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극복형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즉 극복이 많은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이 0.43으로 극복이 적은 집단의 결혼안정성 평균 0.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극복형을 적게 쓰는 집단이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표 12> 참조).

이러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추후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극복형에서 ‘내 배우자의 외도 후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다’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대상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찾는 것이 긍정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기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극복이 많은 집단의 결혼안정성이 더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12> 극복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p
극복이 적은 집단	54	0.32	0.23	-2.274	0.025*
극복이 많은 집단	51	0.43	0.27		

* p<.05

5) 계산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계산형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비교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05)으로 나타났다. 즉 계산을 많이 하는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이 0.46으로 계산을 적게 하는 집단의 결혼안정성의 평균 0.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을 많이 하는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은 결혼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산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계산형에 따른 결혼안정성 비교

	N	평균	표준편차	t	p
계산을 많이 하는 집단	49	0.46	0.23	3.957	0.000*
계산을 적게 하는 집단	57	0.28	0.25		

* p<.0005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난불신형, 회피형, 방치형, 계산형을 많이 쓰는 집단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정적인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들의 결혼안정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특이하게도 극복형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많이 사용할 경우보다 오히려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연구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들의 심리와 결혼적응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추후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연구문제 3>의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경로분석

먼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337로 33.7%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값은 11.174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비난불신형, 방치형, 및 계산형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난불신형은 표준화계수= -0.275, $p = 0.007$ 로서 $p < 0.01$ 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며, 방치형은 표준화계수= -0.231, $p = 0.034$ 로 $p < 0.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산형은 표준화계수= -0.236, $p = 0.006$ 으로 $p < 0.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대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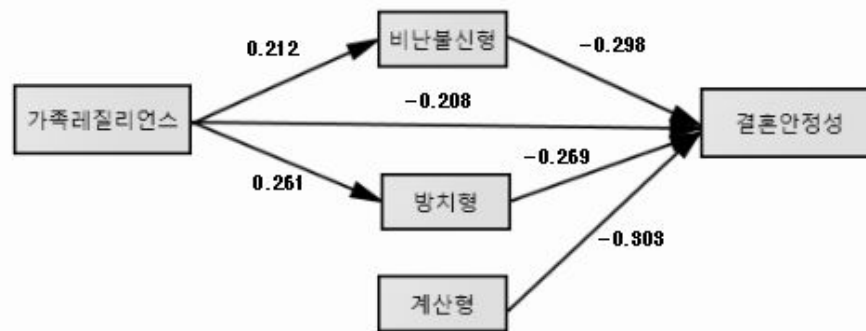
에서 비난불신형, 방치형 및 계산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과 부적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난불신형, 방치형 및 계산형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관계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표 14> 참조). 특히 이 대처유형들의 R^2 값이 0.337로서 결혼안정성의 변량 중 33.7%를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표 14> 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회귀분석

	B		t	p	공차	VIF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상수)	1.269		7.632	0.000		
비난불신형	-0.103	-0.275	-2.738	0.007	0.659	1.518
회피형	-0.046	-0.146	-1.449	0.151	0.655	1.527
방치형	-0.090	-0.231	-2.152	0.034	0.576	1.736
극복형	0.031	0.096	1.127	0.263	0.909	1.100
계산형	-0.066	-0.236	-2.792	0.006	0.928	1.078

F(p) : 11.174(0.000), dw : 2.033, R^2 : 0.337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의 연구 모형의 수치가 적합하지 않아 모형수정을 실시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CFI 값이 0.720으로 모형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이론모형으로 제시되었다(<표 15> 참조). 연구모형의 회귀계수와 영향력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6>).



<그림 3> 경로분석

<표 15> 모형의 적합도 판단

모형비교 지표						모수 불일치성 지수	
x2	p	x2/df	NFI	IFI	Delta2	CFI	RMSEA
22.920	0.000	5.730	0.704	0.743		0.720	0.233

- df (degree of freedom)
- x2/df : 3보다 적어야 전반적인 적합도 만족

- NFI (Normed fit index) : 1에 가까울수록 양호 (0.9 이상이면 양호)
- IFI (Incremental Fit Index) Delta2 : 1에 가까울수록 양호 (0.9 이상이면 양호)
- CFI (Comparative Fit Index) : 1에 가까울수록 양호 (0.9 이상이면 양호)
-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보다 작으면 양호 0.08 이상인 경우 어느 정도 양호 0.1보다 큰 경우 모형채택 고려

<표 16> 연구모형의 회귀계수

			RW	SRW	S.E.	C.R.	P-value
가족레질리언스	→	비난불신형	0.423	0.212	0.209	2.022	0.043
가족레질리언스	→	방치형	0.496	0.261	0.197	2.517	0.012
가족레질리언스	→	결혼안정성	-0.155	-0.208	0.067	-2.297	0.022
비난불신형	→	결혼안정성	-0.111	-0.298	0.033	-3.403	<0.001
계산형	→	결혼안정성	-0.085	-0.303	0.024	-3.535	<0.001
방치형		결혼안정성	-0.105	-0.269	0.035	-3.033	0.002

RW: Regression weight (회귀계수)

SE: Standard error (표준오차)

SRW: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표준화 회귀계수)

CR: Critical Ratio (t-값)

<표 17> 연구모형의 영향력 측정 결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레질리언스	→		결혼안정성	-0.208		-0.208	
가족레질리언스	→	비난불신형	→	결혼안정성	-0.208	-0.063	-0.271
가족레질리언스	→	방치형	→	결혼안정성	-0.208	-0.070	-0.278
계산형	→		결혼안정성	-0.303		-0.303	

카이제곱 값은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 하에 구해지는 통계량이기 때문에 자료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카이제곱 값으로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NFI, IFI, CFI 등의 다른 지수를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연구모형의 회귀계수를 보면 가족레질리언스에서 비난불신형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5$), 회귀계수 값은 0.212로 나타났으며, $p = 0.043$ 으로 나타났다. 가족레질리언스에서 방치형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5$), 회귀계수 값은 0.261로 나타났으며, $p = 0.012$ 로 나타났다. 가족레질리언스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5$), 회귀계수 값은 -0.208이며, $p = 0.022$ 로 나타났다. 비난불신형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05$), 회귀계수 값은 -0.298로 나타났으며, $p = 0.001$ 로 나타났다. 계산형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05$), 회귀계수 값은 -0.303으로 나타났으며, $p = 0.001$ 로 나타났다. 방치형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p < 0.005$), 회귀계수 값은 -0.269로 나타났으며, $p = 0.002$ 로 나타났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모형의 영향력 측정결과 가족레질리언스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우 비난불신형과 방치형은 매개변수로 존재하고, 주효과와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산형은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직접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난불신형인 부정적 대처방식이 가족레질리언스에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며, 가족레질리언스가 높더라도 비난불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방치형도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며, 방치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산형은 가족레질리언스와 매개효과는 없지만 결혼안정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가 외도 상황 이후에 결혼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처방식에 따른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배우자의 외도 이후 대처방식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이후 대처방식과 가족레질리언스, 그리고 결혼안정성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연구를 통하여 조사해 보았다.

배우자의 외도 경험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결혼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먼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외도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T-test를 통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별과 본인직업, 본인 학력, 배우자의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30대 이하가 극복형의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계에서는 기혼자들이 회피형과 방치형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배우자의 직업면에서 전업주부가 방치형의 대처를 덜 하는 편이었고, 무자녀일 때 극복형의 대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수준에서는 500만원 이상일 경우 주로 회피형의 대처를 덜 하고, 맞벌이 여부에서는 맞벌이 외 유형의 경우 회피형과 계산형의 대처를 적게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 회귀분석 결과는 외도라는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와 긍정적 시각을 증가시키면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통념상 외도가 결혼생활의 파국을 의미함을 부정하고 외도라는 난관 역시 부부가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시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 결과는 대처방식에 따라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나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보면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값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두 집단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즉 각 변수마다 사용을 많이 하는 집단과 적게 하는 집단으로 비교하여 어떤 집단이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정적인 대처방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것처럼 결혼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과 같이 부정적인 대처를 많이 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인 대처유형으로 극복형 또한 평균을 기점으로 두 집단을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대처유형인 극복형은 외도라는 위기에 긍정적인 대처유형으로 이런 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극복형이라는 대처방식도 외도라는 위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외도로 인한 갈등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배우자의 외도가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이 대처방식이 왜 결혼안정성을 높여 주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 논의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네 번째 대처방식 하위척도에 따른 결혼안정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비난불신형, 방치형, 계산형을 적게 사용할 때 결혼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난불신형과 방치형, 계산형은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런 대처방식을 줄이면 결혼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비난불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가설과 같이 비난불신형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혼의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유형으로서 서로가 이런 유형의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결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치형과 계산형 또한 서로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생활 한다면 서로의 경계는 더 고착되어지고 대화의 단절과 함께 부부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본다. 이런 유형의 대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결혼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로분석을 통해 대처방식에 따른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회귀계수는 가족레질리언스에서 비난불신형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가족레질리언스에서 방치형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가족레질리언스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계산형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방치형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처유형이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연구 모형의 영향력 측정 결과 가족레질리언스에서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경우 비난형과 방치형은 매개변수로 존재하고, 주효과와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산형은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직접효과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난불신형, 방치형은 가족레질리언스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매개변수로 작용하여 가족레질리언스가 높더라도 이러한 대처유형들을 사용할 경우에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형은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의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그 대처방식이 다소 차이가 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유형보다 극복형의 결혼안정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극복형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외도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극복형 또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대처방식은 외도라는 위기에 좀 덜 쓰는 것이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대처를 많이 하는 집단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혼생활에 외도라는 위기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면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복형의 대처유형이 예상한 바와 달리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더라도 비난불신형 및 방치형의 대처방식을 줄이는 것이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간 관계에서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대처유형을 줄이는 것이 결혼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도를 하나의 시련으로 여기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의 상담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그들이 외도 이후에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파악이 그들의 역경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학문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기혼 남녀들의 좌절 상담사례나 반응들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기혼 남녀의 기본적인 문제점과 그들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가족레질리언스를 파악하였다는 것과 외도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대처방식에 따라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 간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힌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일부 지역에서 국한된 상황에서 진행되어 객관성이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도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배우자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추후 연구에서 더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본연구의 결과는 외도를 경험한 기혼남녀들이 가족레질리언스가 높다는 것만으로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비난불신 및 방치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이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외도에 대한 연구에 기여를 한다고 할 것이다. 외도는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임에도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과 상담을 비롯한 현장 실천가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숙(1989).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현진, 문희경 역(원서: Virkler, H. A; 2006). **외도의 심리**. 서울: 솔로몬.
 박영수(2008). 배우자 외도문제와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연구: Lawrence Crabb의 성경적

- 상담이론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연정(2003). TV 드라마에 나타난 부부관계분석: 외도상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유성(2008). **외도의 심리와 상담**. 서울: 학지사.
- 오영이(2009). 현대소설에 나타난 외도 모티프 연구: 2000년 전후의 한국소설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 Schumm, W. R. (1997).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두 이론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4), 31-46.
- 이선애(2004). 만성질환 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충민(2011). 한국영화에 나타난 여성외도의 재현 양상 연구 : 1980년대 이후의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수민(2011).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결혼안정성.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0). 2009년 이혼통계 결과(<http://kostat.go.kr/portal>).
- Brown, E. M.(1999). *Affairs: A Guide to Working Through the Repercussions of Infide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urr, W. R.(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n Wiley & Sons.
- Cowan, P. A. & Hetherington, M.(1991). *Family transi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nielson, C. B., Bissell, B. H, & Fry, P. W.(1993). *Families, Health& Illness: perspectives on coping and Intervention*. St. Louise: Mosby-year Book, Inc.
- Dolesh, D., & Lehman, S.(1985). *Love Me, Love Me Not : How to Survive Infidelity*. New York : McGraw Hill.
- Jellouschek, H.(2003). *Warum hast du mir das angetan?: Untreue als Chance, pipe*.
- Kubler-Ross, A. E.(1969). *On Death and Dying*. Scribner Book Company.
- Lewis, R., & Spanier, G.(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Burr, R. Hill., F.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2, NY : The Free Press, pp.268-294.
- Lusterman, D. D.(1998). *Infidelity: A Survival Guide*, New Harbinger Publications.
- Natarius, C. & Markman, H.(1993). *We can work it out: making sense of marital conflict*. Putnam.
- Silliman B.(1994). *Rationale for Resilient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Ames, IA.
- Singer, G., and Powers, L.,(1993).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Baltimore: Paul H.

Brookes.

Spanier, G. & Lewis, R.(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269.

Subotnik,R. & Harris, G.G.(1999). *Surviving Infidelity*. Holbook, MA: Adams Media.

Thompson, A. P.(1984). Emotional and Sexual Components of Extramarital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35-42.

Walsh, F.(1998).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Willard F. H. & Harley, J. C.(1998). *Surviving an Affair*, Baker.

Wright, L., Watson, W. L., & Bell, J. M.(1996). *Beliefs : The heart of healing in amilies and illness*. New York: Basic Books.

외도 경험에 대한 기혼남녀의 대처방식이 가족레질리언스와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차 승 은(수원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외도라는 스트레스원을 맞이한 가족 상호작용을 이론적으로 풀어보고자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가족이 가족레질리언스라는 심리적인 자원과 대처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물(결혼해체/결혼유지)이 나타날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스트레스 모델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외도”사건이라는 사건을 다룬 것도 새로웠고, 이를 스트레스 이론으로 풀어가고자 했던 연구자들의 의도도 신선하게 다가온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접하면서 두 가지 점에 대해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외도이슈나 부부관계, 부부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발표를 들으신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판단하구요, 저는 이 논문을 살펴보면서 주로 방법론과 모형부분에 집중해서 논의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상자 선별부분입니다. 연구방법을 보게 되면, 외도사건에 노출된 대상자를 선별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외도사건을 겪은 분들과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또한 외도를 겪은 약 115명의 응답자 중에서 이혼 및 별거가 16명으로 나타나는데, 종속변수인 결혼안정성에 관한 분석에서 이분들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사례수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처방식유형을 모든 변수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셨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 대처방식에 대한 유형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설명이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처방식에서 나타나는 비난불신형, 계산형이라는 용어가 측정도구에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것이 측정도구 상의 하위 문항인지, 아니면 이미 대처유형을 분석해 낸 후 그 속에서 연령대별 분포의 차이를 본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모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외도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도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후 그것이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는 관점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서의 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외도가 결혼을 해체하는 trigger, 혹은 갈등의 결과물로서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외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갈등은 내재해 있었고, 그것이 외도로 표면화되면서 기존의 갈등에 더 추가적인 갈등상황이 덧붙여진 그러한 상황은 없을까요? 이러한 점들을 통해 사실상 부부관계에서 외도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번째는 가족을 해체시킬만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교환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상과 비용에 따라 결혼안정성이 지켜질수도 혹은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결혼을 지키는데 따르는 보상이 비용보다 크다면 결혼안정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비용이 크다면 결혼은 해체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가족레질리언스는 일종의 결혼관계의 보상을 높게 지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파악됩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전략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지키는데 따르는 비용이 크다고 인식할 경우는 “가족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한 메커니즘을 발현할 여지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형만으로 본다면 현재는 결혼에서 비용을 많이 지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째, 대처행동에 비해 가족레질리언스가 반드시 선행하는 개념인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로모형은 가족레질리언스가 먼저 작동하고 그 이후 대처행동이 발현하여 결혼안정성으로 가는 인과적 관련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가족레질리언스와 대처행동이 시간적인 우선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지 혹은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한번쯤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째, 이러한 모형에서 내포하는 의미의 편향 때문에 이러한 변수의 성격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이 모형은 응답자 분포상으로 우측절단된 상황 즉, 가족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한 분석결과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실제 결과에서도 가족레질리언스가 높은 사람들의 대처행동에 따라 결혼안정성 수준이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도 그 자체의 중요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석모형으로 인해 정작 외도 후 결혼관계에 비용을 많이 지각하여 가족레질리언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떠한 대처행동을 사용하는지, 그들은 모두 결혼을 해체하는지, 혹은 대처행동이 잘못되면서 사실상 외도가 아닌 다른 갈등상황으로 몰아가는지, 그러한 정보가 현재 이 모델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도 후 가족해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가족레질리언스 자체가 발현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처방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기술하기 보다 오히려 가족레질리언스 수준이 현재 이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 가족레질리언스가 핵심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이 척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점수 범위나 기타 기술분석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제시가 있다면 조금 더 풍부한 논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